

Research Center

2016년 9월 1일

# 투자전략 Daily

## • 스몰캡투자전략

중소형주 조정국면에 대응한 전략은 슬림화

## • 중화권 증시 동향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에 중국 증시 강세

##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진성티이씨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씨엠에스에듀 외 5개 종목

## • 산업/기업분석

스몰캡디스커버리, 철강, 통신서비스, 네이버, 동운아나텍

##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25(목)	8/26(금)	8/29(월)	8/30(화)	8/31(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42.92	2,037.50	2,032.35	2,039.74	2,034.65
	등락폭	-0.84	-5.42	-5.15	7.39	-5.09
	등락종목	상승(상한)	337(1)	367(0)	156(1)	472(1)
		하락(하한)	450(0)	431(0)	668(0)	331(2)
	ADR	85.64	84.65	80.46	82.35	81.81
	이격도	10 일	99.75	99.54	99.37	99.77
		20 일	100.39	100.08	99.79	100.13
	투자심리	50	0	30	40	40
	거래량 (백만 주)	277	288	317	379	397
	거래대금 (십억 원)	4,199	4,012	3,843	3,818	5,405
코스닥	코스닥지수	683.96	680.43	663.58	667.61	663.69
	등락폭	-3.82	-3.53	-16.85	4.03	-3.92
	등락종목	상승(상한)	449(1)	367(1)	135(1)	711(1)
		하락(하한)	640(0)	431(0)	991(0)	378(0)
	ADR	98.65	77.95	95.71	96.30	95.76
	이격도	10 일	98.53	98.35	96.49	97.52
		20 일	98.01	97.67	95.54	96.37
	투자심리	30	0	20	30	30
	거래량 (백만 주)	646	728	723	592	600
	거래대금 (십억 원)	3,056	2,781	3,389	2,690	2,784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484.1	1,987.5	905.9	289.1	71.8	200.6	64.7	11.0	268.7
	매도	2,472.4	1,967.6	915.7	335.6	83.0	197.5	96.8	15.6	187.3
	순매수	11.8	20.0	-9.8	-46.4	-11.2	3.1	-32.1	-4.6	81.4
	8월 누계	-824.2	1,078.5	-1,327.9	186.0	-434.1	-1,288.5	-59.6	-97.1	365.5
	16년 누계	-5,269.7	8,699.3	-5,868.7	-860.8	936.1	-4,582.5	-1,064.5	-876.8	580.1
	24년 누계	2,439.0								
코스닥	매수	2,474.8	191.3	108.9	48.4	8.6	27.5	8.0	1.2	15.3
	매도	2,414.7	216.2	141.4	38.3	10.4	44.8	20.4	2.6	25.0
	순매수	60.0	-24.8	-32.5	10.1	-1.8	-17.3	-12.4	-1.4	-9.7
	8월 누계	1,037.9	91.8	-891.7	-145.8	-128.0	-309.3	-70.3	-21.1	-217.1
	16년 누계	4,934.8	513.9	-3,735.5	-496.3	-260.7	-1,209.9	-559.5	-142.2	-1,067.1
	24년 누계	-1,713.0								

## 중소형주 조정국면에 대응한 전략은 슬림화

2016년 Target KOSPI	2,180pt
12MF PER	10.43배
12MF PBR	0.96배
Yield Gap	8.3%P

- ▶ 장기간 누적된 상승 피로도와 실적 부진을 감안할 때 중소형주의 조정압력 지속 예상
- ▶ 수익/자산/배당가치 상 투자 매력도가 현저히 높은 개별종목들로 포트폴리오 슬림화
- ▶ 소형 성장주 투자는 정책적/재료적 측면에서 순환매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으로 한정

3년 가까이 지속된  
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채널이  
와해된 상태

### ■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형주의 기초적 강세

소형주들의 상대적 강세 기초가 8월을 고비로 균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3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던 대형주 대비 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채널이 와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코스닥지수는 700선을 이탈한 가운데 제반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소형주지수는 120일 이평선을 이탈한 상태이고, 코스닥 스몰캡지수도 역사적 고점 경신행진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코스피는 2,000P선을 지키고 있으며 대형주지수는 연중 고점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등 대형 가치주들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8월중에 나타난 중소형주들의 약세흐름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9월중에도 지속될 공산이 커 보인다.

[그림 1] 유가증권시장 대형주 대비 소형주 상대강도 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대형주 대비  
현저히 부진한  
소형주의 2분기 실적

첫째, 8월 중순 발표된 소형주들의 2분기 실적이 대형주 대비 크게 부진한 모습이다. 연합인포맥스에서 집계된 2분기 실적자료를 보면 스몰캡 종목들은 고평가된 가운데 이익 개선 모멘텀이 단절되는 양상이다. 유가증권시장 소형주의 전체 PER은 40배를 넘어선 가운데 순이익은 급감하는 모습이다. 6~7월중 개별 종목장세를 이끌었던 코스닥 스몰캡지수 내 전체 종목들의 2분기 순이익은 적자상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공히 대형주 대비 소형주들의 실적 모멘텀이 매우 부진하다. 주가가 고평가된 상황 하에서 이익 모멘텀의 단절은 조정국면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3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개별종목들의 조정세는 지속될 공산이 크다.

〈표1〉 시가총액별 2분기 실적 증감률과 PER

(단위: %, 배)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		순이익 증감률		영업 이익률	PER
	YoY	QoQ	YoY	QoQ	YoY	QoQ		
KOSPI	6.7	2.3	21.3	7.4	16.2	-1.8	8.7	11.2
대형주	9.9	2.3	19.5	8.6	14.9	3.2	10.0	10.2
중형주	-1.1	2.6	31.3	-1.9	49.1	-13.6	5.6	17.1
소형주	-0.7	2.3	35.7	15.8	-36.8	-71.4	4.4	42.0
KOSDAQ	5.1	6.8	12.2	17.9	47.3	38.8	5.7	26.2
KQ 100	11.1	7.2	10.1	11.1	109.5	111.6	9.3	15.5
KQ Mid 300	10.0	7.7	19.9	27.7	-0.1	17.1	6.9	26.9
KQ Small	-3.3	6.0	-13.1	8.9	적전	적전	2.1	n.a

주) PER은 2분기 순이익을 연율화에 산출  
자료: 연합뉴스포맥스,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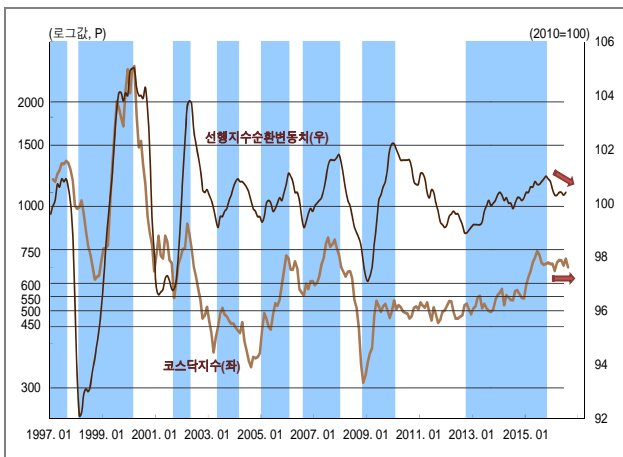
경험적으로  
스몰캡과 삼성전자의  
동시 강세국면의  
최종 승자는 삼성전자

둘째, 과거 삼성전자와 코스닥스몰캡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였던 국면들에서, 코스닥스몰캡지수보다는 삼성전자의 강세가 2~3개월 더 지속되었다는 사실(8월 4일자 당사 데일리 참조)에 비추어 보면, 9월중에 소형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일자 당사 데일리에 언급된 제품믹스 개선,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강세 배경 이외에도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역사적 고점 돌파는 비가역적인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 블루칩 강세를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기의 방향성이  
중소형주의 재강세를  
이끌기에는 아직은  
역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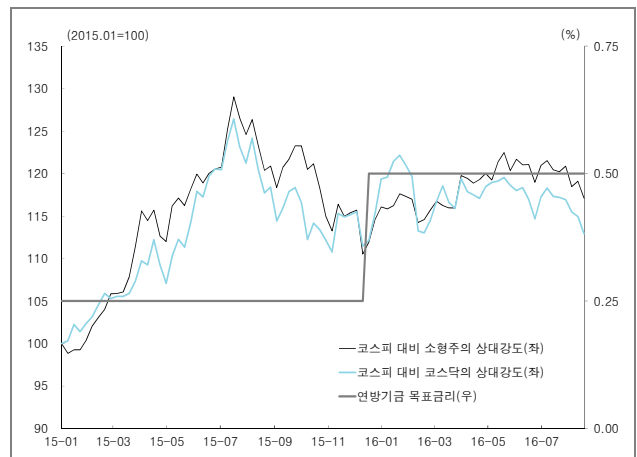
셋째, 경기선행지수의 방향성과 코스닥지수는 중기적으로 동행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상승 사이클로 돌아서지 않는 한 코스닥지수가 700P선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작년 12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를 전후한 코스피 대비 소형주 및 코스닥지수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9월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시기에는 개별종목들이 상대적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에 대한 주가 민감도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금리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거나 특별한 모티브가 없는 한 고평가된 개별종목들에 대한 조정압력은 지속될 여지가 크다.

[그림 2] 코스닥지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작년 미 금리인상을 전후한 소형주 상대강도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 ■ 중소형주의 조정국면에서는 현저한 가치주나 확실한 성장주로 슬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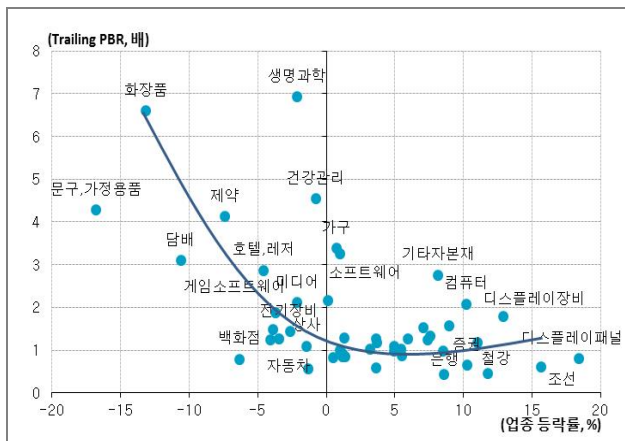
중소형주 강세기조 균열에  
대응한 전략은 슬림화

수익/자산/배당가치 상  
투자매력도가 현저히  
높은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

이처럼 개별종목 장세의 균열 조짐 하에서 취할 수 있는 스몰캡 투자전략은 포트폴리오를 현저히 저평가된 종목이나 상대적으로 유망해 보이는 정책 및 재료를 내재한 종목들로 슬림화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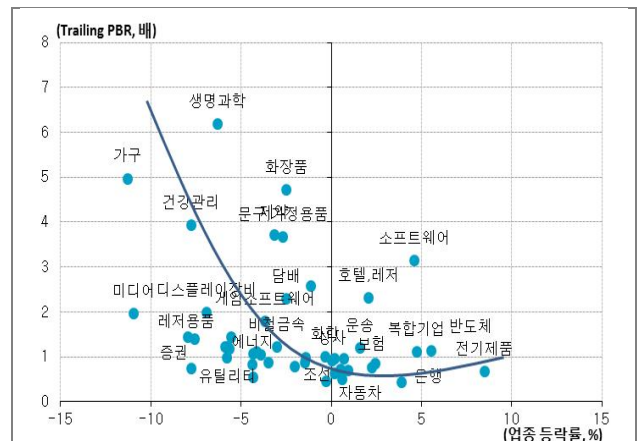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중소형주들의 조정국면 하에서는 투자자들이 재무적 안정성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에 방점을 둘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익가치나 자산가치 혹은 배당가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수익/자산/배당가치가 확실한 종목들 중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만한 재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세가 연속성을 보인다. 특히 7월에 이어 8월에도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도가 높은 업종들중 이익 개선 조짐이 가시화되는 업종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시장에서 배당수익률 5%를 상회해 배당가치가 뚜렷했던 삼보정밀전자가 갤럭시노트7 흥채인식 기술을 재료로 8월중 100%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서연, 서연이화, 대원산업 등 일부 저PER주들도 2분기 실적 개선을 모티브로 상승세를 연출하였다. 또한 흥국, 수성, 에스에프씨 등 PBR 1배 종목들이 턴어라운드 등 이익 개선 가능성을 모티브로 급등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다.

[그림 4] 7월 업종별 등락률과 PBR 비교



주) Trailing PBR은 7월 1일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5] 8월 업종별 등락률과 PBR 비교



주) Trailing PBR은 8월 1일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최근 들어 자산가치가 개별종목 선별의 1차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 컨센서스상 자산가치 저평가 매력을 내재한 종목들 중 8월중 EPS 개선 조짐이 가시화된 종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2> 이익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저PBR주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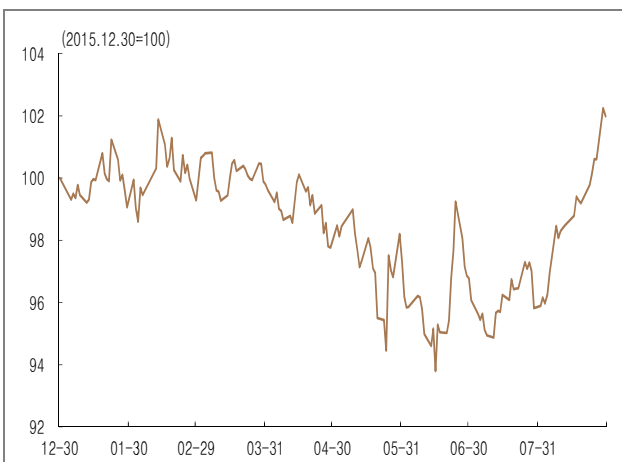
업종	종목	예상PBR	예상PER	8월중 EPS 변화율
비철금속	풍산홀딩스	6.9	0.5	19.5
철강	대한제강	4.7	0.5	23.3
건설	유진기업	7.0	0.5	23.7
백화점	신세계	9.3	0.6	15.6
화학	한화	6.1	0.7	33.2
화학	한화케미칼	6.8	0.8	28.8
섬유/의류	F&F	9.0	0.9	17.7
자동차부품	현대EP	5.7	1.0	15.4

주) 예상 PER 및 PBR과 EPS는 8월 30일 현재 12개월 Fwd 기준임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중소형 성장주는  
정부정책 수혜나  
이슈 및 재료를 내재해  
순환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슬림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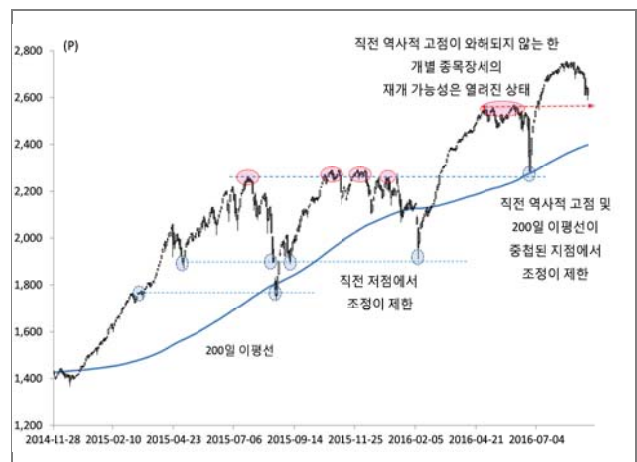
한편 중소형주의 약세국면에서는 통상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소형 성장주에서 완전히 손을 빼는 것은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할 공산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코스닥스몰캡지수는 아직 직전 역사적 고점의 지지력이 와해되지 않는 상태로 언제든 역사적 고점 경신국면으로 재진입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장주와 가치주 간 선택이 혼돈스러울 때에는 성장주에 대한 접근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4분기를 전후해 이슈나 재료를 기반으로 순환매 유입 가능성이 높은 테마를 엄선해 보고, 주도주를 선별해 놓는 것도 현재의 중소형주 조정국면에 대응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림 6] 소형성장주 대비 소형가치주의 상대 강도



주) Trailing PBR은 7월 1일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코스닥 스몰캡지수 추이



주) Trailing PBR은 7월 1일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관련해서 정부정책 수혜나 이슈 및 재료를 내재해 향후 순환매 유입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군들을 점검해 보고 유망 중소형주를 선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본격화되는 원격의료 시대: 정부는 9월부터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본격시작할 예정이며 신청 초기 예상 숫자인 500곳의 두배인 1000여곳의 의원이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 활성화 법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법안 통과도 2017년까지는 가능할 전망이다.

2) 재조명되는 바이오디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의무 혼합비율 제도가 시행되어 2015년 2.5%로 비율이 상향되었으며 2018년에는 3%, 2020년 이후에는 5%까지 의무 혼합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2015년 국내 정유 판매량이 183억리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의무혼합비율 5%가 시행될 시 바이오디젤시장은 현재 4,700억원수준에서 1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재가열되고 있는 태양광: 올 8월 평균 최고기온은 34.4도로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였다. 누진세로 인한 전기세 폭탄 논란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오바마 정부의 Clean Power Plan 정책과 2017년 일몰 예정이었던 투자세



액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하였으며 차기 유력 후보인 힐러리 또한 태양광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태양광의 정책적 지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 카메라의 뉴패러다임, 3D카메라: 16년 들어 시장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트랜드임과 동시에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자율주행시스템, 생체인증이 현실화를 위한 필수 요소는 바로 3D카메라이다.

5) 서막이 시작된 OLED 시대: 글로벌 1위, 2위 스마트폰 업체가 OLED를 메인 디스플레이로 채택하게 되면 글로벌 패널 시장이 OLED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도 2017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티안마, AUO, 에버 디스플레이도 경쟁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6) 구조적 성장에 진입한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14~20년 CAGR이 6%로 예상돼 전체 반도체 시장의 CAGR 3%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MCU, 액츄에이터 구동IC, 파워IC,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AP, 통신IP 등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MCU, AP, 파워IC가 전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향후 ADAS나 자율주행 기능이 발전하면서 센서와 ISP(Image Signal Processor) 등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7) 저금리시대의 대안, 리츠: 전례가 없던 저금리시대에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리츠(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제고된 상태다. 국내 최초의 호텔리츠인 모두투어리츠가 상장을 기점으로 리츠에 대한 관심이 재집중될 여지가 크다.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리츠산업이 부각될 수 밖에 없으며 정부도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과 연계해 리츠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전망이다.

〈표 3〉 순환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 내 유망 스몰캡

(단위: %,배)

구분	종목명	16년 예상 실적 증감률(%)			2016F		비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P/E	P/B	
원격의료	비트컴퓨터*	(1.2)	113.9	162.7	24.3	3.5	국내 1위 EMR 사업자로 원격의료시스템인 비트케어 개발
바이오텔	제이씨케미칼*	92.9	2,534.0	흑자전환	11.7	1.8	국내 바이오텔 생산 능력 4위 업체로 수직계열화 강점 보유
태양광	파루*	69.5	78.4	460.8	7.8	1.4	태양광 발전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추적센서 개발 및 생산
3D카메라	나무가	1.5	(22.1)	53.2	17.8	3.8	3D 카메라 생산업체로 인텔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
OLED	베셀	9.4	3.8	1.6	9.5	1.6	중국 디스플레이용 인라인 시스템 및 공정장비 제조 업체
자동차반도체	유니트론텍	67.3	12.4	10.8	15.5	4.4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유통
리츠	에머슨퍼시픽	12.0	4.8	2.5	15.3	1.9	레저시설 개발 및 건설, 운영 등에 전문화된 부동산 디벨로퍼

주1) P/E와 P/B는 16년 8월 31일 종가 기준

주2) \*표시는 2016년 TTM(Twelve trailing month) 기준 실적 증감률 및 P/E, P/B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정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에 중국 증시 강세

- ▶ 상해종합지수 0.4% 상승,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양호한 것이 호재로 작용
- ▶ 홍콩H지수 0.6% 하락, 미국 금리인상 우려 확대와 국제 유가의 약세지속 등이 악재로 작용

상해종합지수 0.4% 상승,  
부동산, 인테리어, 양조, 보  
험 등의 업종이 강세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0.4% 상승한 3,085p로 마감하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다. 월간단위로는 3.6% 상승했다. 보합으로 출발한 증시는 오전장 마감직전 상승 전환 후 강세를 이어갔다. 거래대금은 직전일보다 소폭 늘어난 1,690억위안을 기록했다. 이번 주 있을 G20회의와 PMI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졌다.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감소했으나 시장 컨센서스보다 양호했던 점과 상반기에 정부와 관련된 펀드 자금들이 증시에 유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또한 증감회에서 선강통 개통시기를 언급한 것도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부동산 선구매가 이어지며 부동산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도 인테리어, 양조, 보험, 고속도로, 증권 등의 업종이 상승했다. 심천성분지수는 강세로 마감했고, 차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한편 외국인들은 후구통을 통해 2.8억위안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이어갔다.

홍콩H지수 0.6% 하락,  
산업소재, 통신서비스, 소재  
등 대부분의 업종 약세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0.6% 하락한 9,542p로 마감했다. 월간단위로는 6.5% 상승하며 본토대비 강세를 보였다. 보합세를 보이던 증시는 오후 들어 하락폭이 확대됐다. 국제원유 가격이 약세를 지속한 것과 미국 금리인상 우려가 확대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다만 증감회에서 선강통 시기를 언급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며 지수의 하락폭을 제한했다. 산업소재, 통신서비스, 소재, 유틸리티 등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8/31(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085.49	0.35	-0.01	3.56	-12.82
심천종합	2,032.87	0.22	0.13	4.70	-11.96
차스닥	2,191.76	-0.17	-0.02	3.27	-19.24
홍콩H	9,541.80	-0.58	0.37	6.51	-1.23
Shibor 7일물 금리(% , %p)	2.37	0.13	0.30	0.89	0.59
Shibor 1개월 금리(% , %p)	2.70	0.00	-0.04	-2.78	-10.19
중국국채 3년물(% , %p)	2.43	0.38	0.55	-1.20	-5.54
위안/달러 고시환율	6.6908	0.14	0.63	0.60	3.04
역내 위안/달러	6.6782	0.04	-0.29	-0.51	-2.76
역외 위안/달러	6.6909	0.05	-0.28	-0.67	-1.83

주: 31일 오후 5시 42분 기준



## 시장 동향과 특징주

### 미국 금리인상 우려 재부각 속 국내증시는 소폭 내림세 마감

- 미국시장이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호조 속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금리인상 우려가 재부각되며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투신 및 금융투자 등의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반전하기도 하였으나 외국인, 사모펀드 및 기타법인 등의 매도세와 미국 조기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재차 하락반전하며 약보합세로 마감. 코스닥시장은 기관 및 외국인의 매도세로 10P 이상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개인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줄이며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NAVER는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나올 연속 상승하며 신고가를 기록하였으며,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핵심 자회사인 한국타이어와 아트라스BX의 안정적이 이익 창출 전망에 강세를 나타냄. 에스에너지는 태양광시장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분석에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삼화전자는 갤럭시노트7 무선충전기에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소식이 알려지며 강세 시현. 아비스타는 중국 상해방직그룹과 의류 브랜드 사업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아이옴은 삼성전자의 초소형 프로젝터 시장 재진출 소식에 강세를 보임. 반면, 유수홀딩스는 주요 고객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소식에 이틀 연속 급락하였으며, LG디스플레이는 중국 TCL그룹의 대규모 LCD 투자 소식에 약세를 나타냄

종목/이슈	내 용
<b>현대중공업(009540)</b> <b>▶137,500(+5.36%)</b>	<b>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원가절감 노력으로 수익성 개선이 진행 중. 구조조정을 통해 현 수준의 선가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li> <li>- 현재 주주 상황은 저조하지만 하이투자증권, 건설기계 등 일부 사업부 및 지분 매각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업황 회복까지 견딜 체력을 확보하였다는 분석</li> </ul>
<b>칩스앤미디어(094360)</b> <b>▶15,300(+13.75%)</b>	<b>외국인 지분 공시 및 하반기 실적 성장 전망에 신고가 기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뉴라이프 에셋 매니지먼트 홍콩 리미티드가 6.5%의 지분을 보유하였다는 공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급등세 시현</li> <li>- 하반기 UHD급 CCTV 및 자동차용 반도체 IP 수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VR, 드론, 액션캠 등 고화질 카메라 수요증가로 꾸준한 성장이 지속될 전망</li> </ul>
<b>해운 관련주</b>	<b>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소식에 반사이익 기대감이 높아지며 관련주 동반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 소식으로 해운 관련주 동반 강세. 특히, 현대상선의 경우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며 국내 최대 해운사로 성장</li> <li>- 현대상선(+25.57%), 흥아해운(+10.98%), 팬오션(+4.55%), 현대글로벌비스(+3.97%) 등 강세</li> </ul>

##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b>NAVER(035420)</b> <b>▶845,000(+2.9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검색 시장 내 지배적인 점유율과 '네이버 플레이스' 등 지역 광고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신규 상품의 출시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 신고가 경신</li> </ul>
<b>LS(006260)</b> <b>▶62,900(+3.8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 상장 및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대감에 신고가 기록</li> </ul>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진성티이씨 외 5개 종목

### - 신규 편입 종목

진성티이씨 (0368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인프라투자 확대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인프라투자 증가 기대감으로 Caterpillar, Hitachi 등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li> <li>- 이들 업체에 굴삭기 하부 주행체 부품을 공급중인 동사의 수혜 가능성 상존. 비용 절감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li> </ul>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5. 12A	177	15	13	703	7.7
	2016. 12F	176	12	10	551	10.9

- 편입 제외 종목: 한국항공우주(기간 경과로 제외 +22.4%)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아진산업 (013310)	10,050 (-4.3)	10,500 (0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12월 현대기아차 개폐 구조물(moving parts) 신규 수주로 16년 700억원의 추가 매출 발생 예상</li> <li>- 설비증설 효과 본격화와 평균판가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은 여전한 상황</li> <li>- 개폐 구조물 신규 수주, 중국 설비증설, 차체 경량화, 부품 라인업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강화 전망</li> </ul>
싸이맥스 (160980)	13,550 (-4.2)	14,150 (0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업체인 원익IPS, Semes, Applied Materials, 테스, ASMGK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웨이퍼 이송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li> <li>- 삼성전자의 평택 단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성장성 부각될 전망. 향후 삼성전자 외 중국 업체 등으로 고객 확대 가능성 및 후공정 패키징 이송장비 등 제품 다변화에 주목</li> </ul>
베셀 (177350)	12,200 (+20.2)	10,150 (0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E, CEC-Panda, CSOT, Tianma 등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중국 LCD In-Line 시스템 제조 분야 시장점유율 1위로 고객사들과 높은 신뢰관계를 유지</li> <li>-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의 대형 LCD 투자에 따라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며, OLED 공정에 In-Line 시스템 시험 생산 장비 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에 따른 수혜 전망</li> </ul>
BGF리테일 (027410)	202,500 (-3.6)	210,000 (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점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외형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li> <li>- 마진율이 높은 백종원 도시락 등 신선식품의 판매 호조와 PB상품 브랜드인 '헤이루(HEYROO)', 원두커피 사업 등의 상품력 강화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전망</li> <li>- 음료, 빙과 등의 매출 증가로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부각될 전망</li> </ul>
GKL (114090)	26,100 (-5.4)	27,600 (07/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분기를 기점으로 드롭액의 회복세가 예상되며 메르스 기저 효과와 홀드올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li> <li>- 예상 배당수익률 3.5% 수준으로 배당매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li> <li>- Silver고객(카지노에서 소비가 큰 일반 고객) 대상 영업이 강화됨에 따라 고객 mix개선 예상</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씨엠에스에듀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씨엠에스에듀 (225330)	27,000 (+0.4)	26,900 (08/26)	56.8	10.7	8.9	2,244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기반으로 매출 상승세 지속</li> <li>직영점 및 가맹점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해외 진출 본격화</li> <li>16년 예상 PER은 11배 수준으로 주요 사교육업체 평균 예상 PER 17배 수준 대비 저평가</li> </ul>				
비아트론 (190510)	26,300 (-2.6)	27,000 (08/26)	91.6	24.5	17.7	1,731	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OE를 시작으로 Tianma와 Visionox 등 중국 패널업체들의 flexible OLED 설비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 전망</li> <li>LG디스플레이의 6세대 flexible OLED라인 설비투자 관련 장비 발주 예상</li> <li>주요 고객사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모멘텀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li> </ul>				
대상 (001680)	32,050 (+9.2)	29,350 (06/22)	2,946	131	82	2,288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이신부문이 빠른 공정 효율화 작업으로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 베스트코의 실적 회복 기대</li> <li>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식품부문의 영업이익률 향상 전망. 내년 초 공장이 완공되는 인도네시아의 전분/전분당 사업추가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 커질 전망</li> <li>올해 예상 PER 12.3배로 업종 평균 21.0배 보다 크게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li> </ul>				
SK머티리얼즈 (036490)	145,900 (+17.7)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li> <li>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li> </ul>				
한섬 (020000)	38,150 (-5.5)	40,350 (04/22)	710	84	69	3,132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 및 신규 브랜드 도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 효과 등에 힘입어 외형 확대와 이익 개선세 가시화</li> <li>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온라인, 홈쇼핑 등 판매 채널 확장으로 추가 성장여력 제고 예상</li> <li>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저평가 상태</li> </ul>				
유한양행 (000100)	288,500 (+4.2)	277,000 (03/28)	1,247	72	116	11,337	2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저효과와 함께 전문의약품 성장과 원료의약품 수출 증가로 양호한 1분기 실적 예상</li> <li>유한화학(지분 100%)과 유한킴벌리(지분 30%)의 이익 턴어라운드 본격화 예상</li> <li>신약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R&amp;D 아웃소싱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강화와 지분가치 부각 가능성</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스몰캡 디스커버리: 광고 패러다임의 대격변

### ■ 뉴미디어 광고 성장을 확신하는 두 가지 이유

16년 총광고비는 전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4대 매체는 0.5% 감소, 뉴미디어는 1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뉴미디어 매체 이용률에 비해 광고 비중이 여전히 낮고(모바일 이용률 27% vs 광고 비중 12%), 2) 저성장 시대에 ROI가 높은 뉴미디어 광고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미디어 광고의 높은 효과가 입증되며 대형 광고주들의 수요가 4대 매체에서 뉴미디어로 본격적으로 이동,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 ■ 타게팅 광고로 뉴미디어 광고 수요 확대

타게팅 광고의 등장으로 뉴미디어로의 광고 수요 이동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타게팅 광고의 경우 광고주는 ROI를 높일 수 있고 매체사 입장에서는 P와 Q가 동시에 증가해 광고주와 매체사 모두에게 유리하다. 특히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등장으로 인벤토리의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며 광고주들의 ROI는 더욱 높아지고 매체사들의 유휴 인벤토리는 감소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은 프로그래매틱 기반의 광고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일본 Ad-tech 업체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프로그래매틱 광고시장도 고성장 중인데 국내 Ad-tech 업체들의 중국 진출로 수혜가 예상된다.

### ■ 데이터 많은 상위 업체 주목

광고 패러다임 변화의 최대 수혜주로 아프리카TV, 나스미디어, 퓨처스트림네트웍스(케이비제7호스팩)를 제시한다. 타게팅 광고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다. 데이터가 타게팅의 정교함과 광고주들의 ROI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1) 다양한 광고 캠페인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가 많은 광고 대행사와 미디어렙, 2) 방대한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를 확보해 정교한 타게팅이 가능한 애드 네트워크, 3) 다양한 이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매체사 등 상위 업체들의 수혜가 클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철강: 더 독해진 중국, 변하지 않은 일본

### ■ 허베이성 구조조정 목표 상향 및 월별 할당

허베이성 지역 정부는 지난 5월 올해 철강 설비 1,422만톤(제강기준) 폐쇄를 목표로 정했다. 그런데 최근 목표치를 1,600만톤으로 상향했으며 월별 폐쇄 계획을 확정했다. 5월에 구조조정안을 확정 한 이후 7월까지 125만톤의 설비가 해체되었고,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1,475만톤의 설비를 폐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월에 298만톤, 9월에 357만톤, 10월에 680만톤, 11월에 140만톤이 해체된다(표1). 대상은 39개 철강사이며 허베이철강 계열사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 ■ 중국 구조조정 본격화로 3분기 업황 개선 지속될 것

중국 전체 설비 폐쇄는 상반기에 1,300만톤이었는데 하반기에는 3,200만톤에 이른다. 구조조정 정책이 5월부터 시행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설비 폐쇄 규모가 더 큰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철강 업황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7월 이후 중국 철근과 열연 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비수기인데다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가 상승한 것인데 이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영향이라 판단한다(그림3,4). 그리고 중국 철강의 핵심 지역인 허베이성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1,475만톤의 설비를 집중적으로 폐쇄한다. 성수기 진입과 더불어 하반기 업황 개선을 이끌 것이다.

### ■ 일본 자동차용 강판 가격은 동결

도요타와 일본 주요 철강업체간 자동차용강판 가격 협상이 '동결'로 결정되었다. 원재료 가격 상승, 철강재 가격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엔화 강세로 엔화기준 원재료 가격이 작년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는 자동차용강판을 제외한 일본의 냉연제품 가격이 이미 톤당 만엔 수준으로 상승해서 자동차용강판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갔다.

### ■ 업종 최선호주를 현대제철에서 POSCO로 변경

중국 관련 지표는 긍정적인 반면 일본의 자동차용강판 가격은 동결되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 업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POSCO는 긍정적이지만 자동차용강판 가격 영향을 크게 받는 현대제철은 중립적이다. 우리는 자동차용강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7월에 하반기 업종 최선호주로 현대제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용강판 가격이 동결되어 국내 자동차용강판 가격 상승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종 최선호주를 POSCO로 변경한다. 비록 일본의 자동차용강판 가격은 동결되었으나 전반적인 업황 개선이 이어지며 하반기 철강업체들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에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통신서비스: 갤럭시7의 손익 영향 미미, 배당 메리트 부각

### ■ 갤럭시노트7 출시로 과열경쟁, ARPU 감소 우려

19일 출시한 갤럭시노트7이 통신시장의 화두다. 국내 판매량이 28일까지 40만대를 상회하며 출시 후 10일간 가장 많이 팔린 단말기로 부각됐다. 이와 같이 갤럭시노트7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갤럭시노트7 가입자의 선택약정 비중이 상승하면서 통신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분기 이후 신규 가입자 중 33%가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데 최근 갤럭시노트7 가입자는 70%가 선택약정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하지만 통신업체 손익 영향은 제한적

하지만 우리는 갤럭시노트7이 통신시장 경쟁 및 통신업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 3분기 손익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 1) 특정 선호 단말기가 마케팅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2) 가입자당 유치비용(SAC) 지출이 안정적이며, 3)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증가가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 효과를 상쇄해 ARPU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 ■ 갤럭시노트7으로 인한 마케팅 과열은 없을 것

첫째, 갤럭시, 아이폰 등 특정선호 단말기가 마케팅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15년 10월 아이폰6S, 16년 3월 갤럭시S7 출시 이후 각각 7일, 2일만에 번호이동 가입자가 2만명이하로 줄어들며 시장이 안정됐다. 갤럭시노트7은 장기 예약 가입 영향 등으로 출시 후 9일간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2만명을 상회했다. 하지만 19~22일 평균 2.6만명에서 23~27일 2.1만명으로 감소했다. 29일에 3만명으로 늘었으나 28일이 휴일로 번호이동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28~29일 번호이동 평균은 1.5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둘째, 갤럭시노트7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적고 대리점 판매촉진비도 변동이 없어 가입자당 유치비용 지출이 안정적이다.

### ■ 약정할인 가입자는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 ARPU 영향 미미

셋째, 갤럭시노트7의 ARPU 영향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7 가입자의 70%가 20% 요금할인을 받는 요금제를 선택하나 신규 가입자 중 40% 이상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해 영향이 상쇄된다. 무제한 데이터의 요금은 59,900원이어서 20% 할인해도 47,920원으로 이통 3사 평균 ARPU 36,258원보다 32% 높다.

### ■ 9월 이후 수익 호전, 배당 메리트 부각 예상

통신주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지난 3개월간 통신주는 경쟁 과열 우려로 시장 대비 3.5%p underperform 했다. 갤럭시노트7 영향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갤럭시노트7의 손익 영향이 미미해 3분기에도 경쟁 완화와 수익 호전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9월 이후는 배당 메리트가 부각될 전망이다. 16년 합산 순이익은 전년대비 6.1%(SK플래닛 손실 제외시 11.8%) 증가할 것이다. 수익 호전이 배당 증가로 이어져 배당수익률은 SK텔레콤 4.5%, LG유플러스 2.5%, KT 2.5%에 달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NAVER(035420)

## 매수(유지)

목표가: 1,050,000원(상향)

종가(8/30): 821,000원

## LINE, 그리고 제2의 LINE

## ■ 매수 의견 유지, 목표주가 1,050,000원으로 상향

Naver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1,050,000원(SOTP: Naver 포털 20.5조원, LINE 11.4조원, Snow 2.3조원)으로 23.5% 상향한다. 모바일 검색 시장 내 지배적인 점유율과 신규 광고상품 출시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국내 포털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6월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LINE의 퍼포먼스 광고는 CPM과 Impression의 동반 상승으로 매출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퍼포먼스 광고를 통한 LINE의 성장 본격화

LINE Timeline과 LINE News를 활용한 퍼포먼스 광고의 성장이 3분기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LINE은 지난 1월 인수한 MTburn의 광고 플랫폼인 Hike와 FreakOut의 DSP(Demand Side Platform)와 연계해 6월부터 RTB(Real Time Bidding)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다. Ad Load의 확대와 CPM의 상승으로 2017년 LINE Timeline과 LINE News의 매출액은 각각 192억엔(+183.6% YoY)과 136억엔(+252.8% YoY)으로 큰 폭 증가할 전망이다.

## ■ 제2의 LINE인 Snow에 주목

Snow의 성장이 예상롭지 않다. 지난 2월 1,000만건에 불과했던 누적 다운로드 수가 5월부터 매달 1,000만건씩 증가하며 8월 6,000만건을 돌파했다. 메신저 트렌드의 중심이 기존 텍스트 전송에서 이미지 및 동영상 전송으로 이동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 향 광고 집행비중이 높아지면서 Snow와 같이 견고한 트래픽을 확보한 메신저 플랫폼의 monetization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2,758	758	454	15,277	(69.6)	902	46.6	23.9	8.7	27.8	0.1
2015A	3,251	762	519	17,619	15.3	918	37.3	21.1	6.8	26.5	0.2
2016F	4,084	1,173	821	28,163	59.8	1,336	29.2	17.9	6.8	32.4	0.2
2017F	4,922	1,678	1,106	37,947	34.7	1,847	21.6	12.4	5.3	31.7	0.2
2018F	5,783	1,945	1,306	44,812	18.1	2,119	18.3	10.2	4.3	28.0	0.3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동운아나텍(094170)

매수(유지)

목표가: 17,000원(유지)

종가(8/30): 12,800원

### 홍채인식 등의 제품 다각화가 강하게 진행될 2017년

#### ■ 홍채인식폰의 등장 등 영업환경은 우호적으로 진행 중

AF(Auto Focus, 자동초점)용 IC를 개발/판매하는 동운아나텍을 둘러싼 영업환경은 우호적으로 진행 중이다. 즉, 1) 2016년부터는 후방에 듀얼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폰들이 속속 등장해 AF가 두 개 탑재되는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2) 전방 카메라모듈의 화소수 증가에 힘입어 전방 카메라모듈에 새롭게 AF를 탑재하는 스마트폰 모델이 최근 출시되어 향후 그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고, 3) 갤럭시노트7이 새롭게 홍채인식을 탑재하며 인기몰이를 구가 중인데 동사가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일체형 홍채인식 솔루션이 향후 본격적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또한 4) AF를 장착한 스마트폰의 시장성장률이 일반 스마트폰의 성장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도 장점이다.

#### ■ 2Q16 실적은 일회성비용의 영향 등으로 부진

하지만 단기적 실적흐름은 부진한 상황이다. 2Q16 매출액은 141억원을 기록해 예상치를 충족했지만 영업이익이 4.9억원(영업이익률 3.5%)을 기록해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다. AF용 IC의 경쟁심화 요인도 있었지만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개발비감액손실 등 일회성비용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매출 측면에서는 2분기 휴대폰에 장착되는 디스플레이 파워용 Driver IC의 매출액(전체 매출액 중에서 2%를 차지)이 L사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여전히 부진했던 점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판단된다.

#### ■ 하반기 실적부진 지속, 2017년에는 제품 다각화가 강하게 진행될 전망

올해 2H16에도 계획했던 신규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고가폰향으로의 납품 비중이 아직은 낮아 동사의 뚜렷한 실적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전체적으로 동사가 제시했던 가이드스 수준의 실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2017년에는 동사의 신규제품 출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제품 다각화가 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1) OIS(손떨림방지)용 Driver IC는 내년 1분기에, 2) 햅틱(보다 정밀한 진동을 느끼게 하는 모터)용 Driver IC는 내년 2분기에 납품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3) 일체형 홍채인식에 필요한 'IR필터 체인저'를 이미 경쟁업체대비 빠르게 개발완료했기 때문에 2016년 신규 스마트폰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 2017년에는 영업이익 대폭 증가하여 실적 회복 전망. 투자의견 매수 유지

이에 따라 2016년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감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지만 2017년 경우 수익성 높은 신규제품 비중의 상승으로 실적이 대폭 회복될 전망이다(2017년 영업이익과 EPS가 전년대비 각각 206%, 141% 증가 전망). 단기적인 실적 부진보다는 1) 동사의 앞선 기술력, 2) 제품 다각화 역량, 3)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해외 고객 비중 등을 감안한 투자전략을 권고하여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목표주가 역시 17,000원을 유지하는데, 2017년 휴대폰 부품업종 평균 PER 8.4배를 30% 할증해서 산출했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44	5	6	1,077	5.2	7	NM	NM	NM	32.6	—
2015A	57	8	8	1,450	34.6	10	7.4	5.0	1.8	28.9	1.3
2016F	59	3	4	621	(57.2)	5	20.6	12.8	2.0	9.8	1.1
2017F	73	9	9	1,510	143.1	11	8.5	5.5	1.7	20.8	1.1
2018F	87	10	9	1,517	0.5	13	8.4	4.2	1.4	17.6	1.1

\*상기 보고서는 2016년 8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김영현(youngkim@truefriend.com) ☎ 02-3276-6186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25(목)	8/26(금)	8/29(월)	8/30(화)	8/31(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42.92	2,037.50	2,032.35	2,039.74	2,034.65
	등락폭	-0.84	-5.42	-5.15	7.39	-5.09
	등락종목	상승(상한)	337(1)	367(0)	156(1)	472(1)
		하락(하한)	450(0)	431(0)	668(0)	331(2)
	ADR	85.64	84.65	80.46	82.35	81.81
	이격도	10 일	99.75	99.54	99.37	99.77
		20 일	100.39	100.08	99.79	100.13
	투자심리	50	0	30	40	40
	거래량	(백만 주)	277	288	317	379
	거래대금	(십억 원)	4,199	4,012	3,843	3,818
코스닥	코스닥지수	683.96	680.43	663.58	667.61	663.69
	등락폭	-3.82	-3.53	-16.85	4.03	-3.92
	등락종목	상승(상한)	449(1)	367(1)	135(1)	711(1)
		하락(하한)	640(0)	431(0)	991(0)	378(0)
	ADR	98.65	77.95	95.71	96.30	95.76
	이격도	10 일	98.53	98.35	96.49	97.52
		20 일	98.01	97.67	95.54	96.37
	투자심리	30	0	20	30	30
	거래량	(백만주)	646	728	723	592
	거래대금	(십억원)	3,056	2,781	3,389	2,690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484.1	1,987.5	905.9	289.1	71.8	200.6	64.7	11.0	268.7
	매도	2,472.4	1,967.6	915.7	335.6	83.0	197.5	96.8	15.6	187.3
	순매수	11.8	20.0	-9.8	-46.4	-11.2	3.1	-32.1	-4.6	81.4
	8월 누계	-824.2	1,078.5	-1,327.9	186.0	-434.1	-1,288.5	-59.6	-97.1	365.5
	16년 누계	-5,269.7	8,699.3	-5,868.7	-860.8	936.1	-4,582.5	-1,064.5	-876.8	580.1
코스닥	매수	2,474.8	191.3	108.9	48.4	8.6	27.5	8.0	1.2	15.3
	매도	2,414.7	216.2	141.4	38.3	10.4	44.8	20.4	2.6	25.0
	순매수	60.0	-24.8	-32.5	10.1	-1.8	-17.3	-12.4	-1.4	-9.7
	8월 누계	1,037.9	91.8	-891.7	-145.8	-128.0	-309.3	-70.3	-21.1	-217.1
	16년 누계	4,934.8	513.9	-3,735.5	-496.3	-260.7	-1,209.9	-559.5	-142.2	-1,067.1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순매수	순매도
전기전자	운수창고 -18,600
철강금속	의약품 -7,769
기타금융업	서비스업 -6,648
삼성전자	현대상선 -12,732
POSCO	일동제약 -4,293
KB금융	한진칼 -4,232
현대중공업	현대글로벌비스 -4,095
SK이노베이션	한미약품 -3,652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전기전자	의약품 -13,117
운수장비	통신업 -6,750
서비스업	화학 -6,143
삼성전자	한미약품 -6,124
현대글로벌비스	SK텔레콤 -4,528
LG화학	삼성전기 -3,401
NAVER	LG생활건강 -2,899
POSCO	대한유화 -2,877

(체결기준: 백만원)

은행	
순매수	순매도
미분류	철강금속 -2,807
은행	운수창고 -2,715
화학	음식료 -431
KODEX 레버리지	POSCO -3,779
TIGER 헬스케어	팬오션 -2,540
KODEX 200	삼성생명 -673
우리은행	NICE -619
TIGER 200	한화테크윈 -612

보험	
순매수	순매도
기타금융업	전기전자 -9,179
운수장비	화학 -4,798
철강금속	의약품 -4,683
현대중공업	KODEX 200 -5,486
KODEX 코스피	SK하이닉스 -4,565
POSCO	현대상선 -2,885
KB금융	두산중공업 -2,654
하나금융지주	삼성SDI -2,189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순매수	순매도
전기전자	의약품 -35,917
운수장비	서비스업 -32,055
철강금속	화학 -30,853
삼성전자	현대상선 -18,213
POSCO	한미약품 -14,539
현대중공업	NAVER -12,996
KB금융	SK하이닉스 -9,474
LG화학	일동제약 -8,540
KODEX 인버스	삼성전기 -8,001
LG디스플레이	GS리테일 -7,918
신세계	KODEX 레버리지 -7,212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6,120
엔씨소프트	SK텔레콤 -6,018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서비스업	전기전자 -78,876
화학	기타금융업 -11,398
통신업	의약품 -4,307
NAVER	삼성전자 -77,077
SK하이닉스	현대차 -16,486
LG화학	LG디스플레이 -14,315
한국항공우주	KB금융 -11,056
LG유플러스	고려아연 -9,476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6,474
LG생활건강	LG전자 -5,343
LS	삼성생명 -5,020
LG	대웅제약 -3,495
SK이노베이션	엔씨소프트 -3,337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1,319	반도체	-5,408
운송장비, 부품	669	의료, 정밀기기	-2,622
IT부품	277	제약	-2,103
셀트리온	1,674	원익홀딩스	-1,812
에코프로	1,197	씨젠	-1,454
CJ E&M	1,025	서부T&D	-1,080
휴온스글로벌	800	뷰웍스	-819
우리산업	74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02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641	반도체	-3,134
방송서비스	248	디지털컨텐츠	-2,834
화학	165	의료, 정밀기기	-1,069
CJ E&M	1,140	SK머티리얼즈	-2,359
휴젤	845	컴투스	-1,955
바이넥스	635	CJ오쇼핑	-892
AP시스템	572	카카오	-726
비아트론	526	인바디	-68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74	기타서비스	-364
디지털컨텐츠	101	의료, 정밀기기	-332
비금속	41	IT부품	-207
서원인텍	282	NICE평가정보	-364
보령메디앙스	190	블루콤	-241
셀트리온	116	휴온스글로벌	-214
서울옥션	104	차디오스텍	-198
조이시티	89	슈피겐코리아	-166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도매	999	제약	-2,101
기계, 장비	768	전문기술	-901
반도체	733	금속	-303
SK머티리얼즈	924	오스코텍	-1,033
다우데이타	722	메디톡스	-588
SKC코오롱PI	624	셀트리온	-447
에스에프에이	568	한양이엔지	-436
테라세미콘	454	아이씨디	-373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2,096	반도체	-12,323
음식료, 담배	1,755	의료, 정밀기기	-5,244
컴퓨터서비스	824	디지털컨텐츠	-4,159
셀트리온	2,743	컴투스	-4,443
CJ E&M	2,397	원익홀딩스	-2,901
에코프로	2,104	SK머티리얼즈	-2,537
AP시스템	1,480	오스코텍	-2,207
휴온스글로벌	1,367	로엔	-2,050
아미코젠	1,173	큐리언트	-1,837
우리산업	1,069	슈피겐코리아	-1,623
테라세미콘	1,036	씨젠	-1,575
케어젠	860	오스템임플란트	-1,526
이지바이오	824	이오테크닉스	-1,41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2,157	제약	-8,547
통신서비스	1,842	기계, 장비	-3,019
출판, 매체복제	1,572	운송장비, 부품	-2,581
유진테크	3,099	휴젤	-2,966
이오테크닉스	2,465	메디톡스	-2,376
CJ E&M	2,374	서울반도체	-2,352
SK머티리얼즈	1,723	디지털유통	-1,873
로엔	1,622	원익IPS	-1,837
한국전자금융	1,530	아이씨디	-1,790
에스티팜	1,392	원익홀딩스	-1,647
솔브레인	1,081	우리산업	-1,577
NICE평가정보	974	바이넥스	-1,359
컴투스	904	AP시스템	-1,25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QV 내수소비 TOP5 ETN	35 일	영원무역홀딩스	37 일	
삼성 KTOP30 ETN	22 일	효성	26 일	
호텔신라	16 일	고려제강	26 일	
KBSTAR				
미국원유생산기업(합성 H)	13 일	한화테크윈	24 일	
TIGER 원유선물(H)	13 일	한전기술	23 일	
동양고속	12 일	NAVER	23 일	
KOSEF 200 선물	11 일	한라홀딩스	20 일	
이연제약	11 일	광주신세계	20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유비쿼스	14 일	유진테크	40 일
케이맥	14 일	에이스침대	26 일
세운메디칼	11 일	이크레더블	16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11 일	케이아이엔엑스	11 일
나이스정보통신	11 일	제이브이엠	11 일
우리산업	10 일	금화피에스시	11 일
바이넥스	10 일	동국제약	10 일
비아트론	9 일	가온미디어	10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335,245	NAVER	127,503
POSCO	74,049	SK하이닉스	94,252
현대차	70,513	한국항공우주	55,144
현대모비스	66,500	호텔신라	32,627
LG화학	44,368	LG유플러스	23,977
삼성생명	41,125	현대산업	20,641
기아차	38,369	한화테크윈	20,479
하나금융지주	36,624	동아쏘시오홀딩스	15,117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CJ E&M	11,940	유진테크	7,752
에코프로	5,318	이오테크닉스	6,238
비아트론	5,077	솔브레인	5,711
바이넥스	5,058	오스템임플란트	4,631
AP시스템	4,181	피에스케이	3,495
이녹스	3,033	동아엘텍	3,316
아미코젠	2,463	에스에프에이	3,268
엘앤에프	2,255	한국전자금융	3,236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30,578	394	30,972
LG화학	11,935	13,723	25,657
POSCO	20,790	2,456	23,246
현대중공업	16,190	1,294	17,485
KODEX 인버스	11,471	4,960	16,431
SK이노베이션	7,143	5,837	12,979
현대글로벌비스	2,969	4,685	7,654
대한항공	5,554	1,706	7,261
현대제철	4,993	1,516	6,508
기업은행	4,600	585	5,185
호텔신라	3,119	1,077	4,197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방송서비스	2,096	2,157	4,253
통신서비스	1	1,842	1,844
교육	658	354	1,012
CJ E&M	2,397	2,374	4,772
셀트리온	2,743	828	3,571
SKC코오롱PI	648	858	1,505
청담러닝	593	392	985
케어젠	860	116	976
이지바이오	824	76	900
게임빌	247	552	798
지스마트글로벌	732	32	764
이녹스	540	194	734
다우데이터	558	173	73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태경산업	46 일	한솔아트원제지	37 일
한솔로지스틱스	39 일	대한제분	32 일
녹십자홀딩스	29 일	퍼시스	27 일
KB손해보험	24 일	엔에스쇼핑	23 일
한양증권	24 일	백광소재	22 일
한국콜마홀딩스	20 일	동양	21 일
대한유화	20 일	삼성화재	20 일
한라홀딩스	19 일	맥쿼리인프라	19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유니크	52 일	와이비애플	74 일
다원시스	27 일	오리콤	27 일
엠케이전자	27 일	와이솔	21 일
인터파크	26 일	우진비앤지	18 일
교보5호스팩	22 일	바이오톡스텍	17 일
라이온캡텍	22 일	삼원테크	17 일
진로발효	21 일	한국캐피탈	17 일
엠피씨	20 일	이건창호	16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NAVER	-62,756	삼성전자	-401,027
삼성전기	-36,596	현대차	-92,865
CJ CGV	-25,766	현대모비스	-43,518
한샘	-20,312	SK이노베이션	-39,306
현대상선	-18,554	삼성화재	-31,326
SK하이닉스	-17,585	기아차	-28,582
대한유화	-17,297	LG생활건강	-22,516
LG유플러스	-16,221	롯데쇼핑	-22,051

KOSDAQ			
기	관	외	국 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0,041	카카오	-9,505
원익IPS	-9,653	AP시스템	-5,285
솔브레인	-8,198	우리산업	-5,059
메디톡스	-6,527	아이씨디	-4,491
오스템임플란트	-6,108	실리콘웍스	-3,692
휴온스	-6,104	크리스탈신소재	-3,588
서울반도체	-6,059	비아트론	-3,500
카카오	-5,632	인터로조	-3,195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의약품		-35,917	-4,307	-40,224
전기전자		60,211	-78,876	-18,665
운수창고		-18,464	8,069	-10,396
현대상선		-18,213	-3,193	-21,406
삼성전기		-8,001	-2,500	-10,501
GS리테일		-7,918	-1,493	-9,411
KODEX 레버리지		-7,212	-1,394	-8,606
롯데케미칼		-4,430	-2,708	-7,138
대웅제약		-1,572	-3,495	-5,066
KODEX 코스닥150		-4,895	-38	-4,933
LG이노텍		-3,958	-369	-4,327
다우기술		-2,473	-1,375	-3,848
한미사이언스		-1,943	-1,697	-3,640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12,323	-1,011	-13,333
제약		157	-8,547	-8,391
의료,정밀기기		-5,244	-2,372	-7,616
원익홀딩스		-2,901	-1,647	-4,548
아이씨디		-1,296	-1,790	-3,086
원익IPS		-1,215	-1,837	-3,052
메디톡스		-626	-2,376	-3,002
서울반도체		-57	-2,352	-2,409
슈피겐코리아		-1,623	-206	-1,829
레코캠바이오		-921	-366	-1,287
세코닉스		-2	-1,082	-1,083
유니테스트		-749	-258	-1,006
인바디		-760	-243	-1,00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SK하이닉스	618	22,400
삼성전자	12	20,087
SK이노베이션	68	9,624
KODEX 200	257	6,614
KB금융	168	6,513
한국항공우주	77	6,386
LG생활건강	6	5,688
아모레퍼시픽	14	5,568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49	5,176
카카오	45	3,566
안랩	28	1,759
파라다이스	100	1,681
에코프로	89	1,275
메디투스	2	1,106
오스템임플란트	17	1,013
휴젤	2	1,013

주: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기준임

### ◆ 대차잔고상위종목

(체결기준:천주,백만원)

K O S P I		
종목	주수	금액
삼성전자	4,287	7,052,640
NAVER	1,393	1,143,695
현대중공업	8,761	1,143,329
SK하이닉스	25,974	942,873
LG전자	17,845	931,522
POSCO	3,917	898,921
한미약품	1,423	872,030
호텔신라	12,629	858,799

K O S D A Q		
종목	주수	금액
셀트리온	22,231	2,356,522
카카오	14,740	1,179,175
바이로메드	2,370	284,365
로엔	2,984	229,487
메디투스	478	213,497
컴투스	1,890	201,069
파라다이스	10,141	170,369
이오테크닉스	1,309	117,520

주: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기준임

### ◆ 대차잔고5일간누적순증/감상위업종및종목

(체결기준:천주)

K O S P I			
순증		순감	
운수창고	7,190	전기전자	-5,057
기타금융업	2,237	통신업	-3,359
의료정밀	1,421	건설업	-2,337
팬오션	3,672	웅진에너지	-4,039
현대상선	2,319	LG유플러스	-3,368
두산인프라코어	1,789	삼성중공업	-2,905
우리종금	1,701	한온시스템	-1,779
미래산업	1,242	대우건설	-1,627
아시아나항공	1,175	한화케미칼	-1,228
KB금융	1,163	메리츠종금증권	-1,100
월비스	834	현대증권	-1,026
금호타이어	701	동양생명	-931
LG전자	624	SK하이닉스	-892

K O S D A Q			
순증		순감	
정보기기	3,626	종합건설	-879
미분류	2,972	제약	-578
IT부품	1,490	금속	-405
세우테크	3,516	파라다이스	-1,014
원익홀딩스	1,031	서한	-877
차이나그레이트	869	보성파워텍	-843
아이이	770	SKC 솔믹스	-591
이스트아시아홀딩스	635	실리콘웍스	-502
에스앤씨엔진그룹	600	휴온스글로벌	-463
완리	496	CJ E&M	-430
파루	473	엠제이비	-368
유니슨	400	파트론	-325
에스아이티글로벌	370	씨젠	-322

주: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기준임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거래주체별매매동향

(단위:십억)

구분	연간누계	월간누계	5일간누계	8/25(목)	8/26(금)	8/29(월)	8/30(화)	8/31(수)
외국인	8,699.3	1,078.5	-551.6	-320.7	-384.1	83.0	50.3	20.0
기관계	-5,868.7	-1,327.9	521.9	253.1	190.5	-39.4	127.6	-9.8
(투신)	-4,582.5	-1,288.5	-239.0	-156.5	-74.6	-3.8	-7.2	3.1
(연기금)	918.3	426.9	428.6	164.9	120.6	22.0	35.2	85.9
(은행)	-876.8	-97.1	-19.2	-7.7	0.0	-1.9	-5.0	-4.6
(보험)	936.1	-434.1	-177.2	-26.6	-17.9	-109.4	-12.0	-11.2
개인	-5,269.7	-824.2	-267.5	-3.3	-61.4	-42.0	-172.6	11.8
기타	2,439.0	1,073.5	297.2	71.0	255.0	-1.6	-5.3	-21.9

주:KOSDAQ제외

### ◆증시자금동향

(단위:p,십억원,%)

구분	2013	2014	2015	8/24(수)	8/25(목)	8/26(금)	8/29(월)	8/30(화)
KOSPI	2,011.3	1,915.6	1,961.3	2,043.8	2,042.9	2,037.5	2,032.4	2,039.7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2,421.3	22,058.1	23,503.2	24,695.3	24,078.3
(증감액)	-3,802.5	1,630.7	6,853.1	-835.7	-363.2	1,445.1	1,192.1	-617.0
(회전율)	29.9	34.0	28.8	33.2	32.9	28.9	29.3	27.0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646.1	-244.3	1,462.8	1,238.7	-608.9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3,386.2	3,386.8	3,389.3	3,379.8	3,381.1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4,399.3	4,400.3	4,404.4	4,397.5	4,386.9
미수금	92.9	117.6	151.0	126.1	123.4	110.5	114.9	106.4

주1:실질예탁금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증분)/고객예탁금회전율=(KOSPI,KOSDAQ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까지제공,KOSCOM

### ◆국내수익증권유출입동향

(단위:십억원)

구분	설정잔액	연간누계	월간누계	8/23(화)	8/24(수)	8/25(목)	8/26(금)	8/29(월)
전체주식형	68,249	-6,384	-2,168	-36	-71	-175	-134	-66
(ex.ETF)		-5,727	-1,941	-82	-74	-117	-124	-48
국내주식형	53,198	-6,181	-2,025	8	-66	-152	-131	-69
(ex.ETF)		-5,428	-1,699	-38	-68	-94	-120	-51
해외주식형	15,050	-203	-143	-44	-6	-23	-4	3
(ex.ETF)		-299	-242	-44	-6	-23	-4	3
주식혼합형	7,883	-119	-24	32	0	-1	3	1
채권혼합형	29,338	-1,525	-654	8	1	98	-22	-125
채권형	110,892	21,474	2,117	37	675	366	118	-53
MMF	124,938	29,798	-1,392	-429	-1,269	-482	30	-2,469

주:상기표의수치는2거래일전까지제공,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이머징마켓외국인매매동향

(단위:백만달러)

국가	연간누계	월간누계	5일간누계	8/25(목)	8/26(금)	8/29(월)	8/30(화)	8/31(수)
한국	7,637	979	-494	-287	-343	74	45	18
대만	12,951	2,313	410	251	110	-1	50	-
인도	5,913	1,268	83	-45	-	83	-	-
인도네시아	2,929	1,041	-11	52	6	-11	-58	-
태국	3,245	941	81	29	-22	52	21	-
남아공	-5,320	-73	-313	-87	-119	-12	-95	-
필리핀	1,079	20	-85	-23	-16	-	-46	-

자료: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금리, 환율및원자재가격

(단위:%,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8/25(목)	8/26(금)	8/29(월)	8/30(화)	8/31(수)
회사채(AA-)	2.11	1.64	1.64	1.66	1.67	1.69
회사채(BBB-)	8.06	7.72	7.73	7.75	7.75	7.78
국고채(3년)	1.66	1.24	1.24	1.27	1.28	1.30
국고채(5년)	1.81	1.27	1.27	1.30	1.31	1.35
국고채(10년)	2.08	1.42	1.42	1.44	1.44	1.47
미국채(10년)	2.27	1.57	1.62	1.62	1.57	-
일본채(10년)	0.27	0.09	0.07	0.07	0.08	-
원/달러	1,172.50	1,115.90	1,113.70	1,125.00	1,119.40	1,114.80
원/100엔	972.63	1,110.24	1,110.04	1,100.35	1,090.88	1,079.29
엔/달러	120.55	100.51	100.45	102.24	102.66	103.29
달러/유로	1.09	1.13	1.13	1.11	1.11	1.11
DDR31Gb(1333MHz)	1.00	1.08	1.08	1.08	1.08	-
DDR32Gb(1333MHz)	1.13	1.11	1.11	1.12	1.12	-
NANDFlash16Gb(MLC)	1.46	1.59	1.61	1.61	1.61	-
CRB지수	176.81	187.16	186.11	184.43	182.82	-
LME지수	2,217.9	2,358.1	2,357.8	2,357.8	2,350.3	-
BDI	478	718	720	720	715	-
유가(WTI,달러/배럴)	37.04	47.33	47.64	46.98	46.35	-
금(달러/온스)	1,060.00	1,321.30	1,318.75	1,318.75	1,318.15	-

자료: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2	23	24	25	26
	美> 마켓 미국 제조업 PMI (52.1, 52.6, 52.9) 7월 신규주택매매(천건) (654, 580, 592) 日> 닛케이 일본 PMI 제조업 (49.6, n/a, 49.3) 유럽>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1.8, 52.0, 52.0) 소비자기대지수 (-8.5, -7.7, -7.9)	美> 7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5.39, 5.55, 5.57) 독일> 2분기 GDP QoQ (0.4%, 0.4%, 0.4%)	美> 잭슨홀 미팅(~2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61, 265, 262)	美> Yellen 연준의장 연설 2분기 GDP 연간화 QoQ (n/a, 1.1%, 1.2%) 8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90.8, 90.6, 90.4) 日> 7월 CPI YoY (-0.4%, -0.4%, -0.4%) 유럽> M3 통화공급 YoY (4.8%, 5.0%, 5.0%)
29	30	31	1	2
美> 7월 PCE 근원 전월비 (0.1%, 0.1%, 0.1%) 7월 개인소비지수 (0.3%, 0.3%, 0.4%)	실적발표> 美 애버크롬비&피치, 샘소나이트	韓> 7월 광공업생산 YoY (1.6%, 0.4%, 0.8%) 유럽> 7월 실업률 (n/a, 10.0%, 10.1%) 美> Kashkari 연준이사 연설	韓> 8월 CPI YoY (n/a, 0.7%, 0.7%) 8월 수출 YoY (n/a, -0.5%, -10.2%) 美> 8월 ISM 제조업 지수 (n/a, 52.3, 52.6) 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n/a, 50.1, 50.6) 8월 제조업 PMI (n/a, 49.9, 49.9) 유럽> 8월 제조업 PMI (n/a, 51.8, 51.8)	美> <b>8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b> <b>(n/a, 188, 255)</b> 8월 실업률 (n/a, 4.8%, 4.9%) 8월 시간당 평균 임금 MoM (n/a, 0.2%, 0.3%) 7월 내구재 주문 (n/a, 4.4%, 4.4%) 韓> 2분기 GDP QoQ (n/a, 0.7%, 0.7%)
5	6	7	8	9
韓> 8월 외환보유고(십억\$) (n/a, n/a, 371.38) 中> 8월 차이신 중국 PMI 서비스업 (n/a, n/a, 51.7)	美> 8월 마켓 서비스 PMI (n/a, n/a, 50.9) 8월 ISM 비제조업지수 (n/a, 55.5, 55.5) [유럽] GDP SA 전년대비 (n/a, n/a, 1.6%)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中> 8월 외환보유고(십억\$) (n/a, n/a, 3201.1)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日> BoP 경상수지(10억엔) (n/a, n/a, 974.4) GDP SA QoQ (n/a, n/a, 0.0%) [유럽] ECB 단기수신금리 (n/a, n/a, -0.4%)	韓> <b>BoK 7일 Repo 금리</b> <b>(n/a, n/a, 1.25%)</b> 美> 7월 도매 재고 전월비 (n/a, -0.1%, 0.0%) 中> CPI YoY (n/a, n/a, 1.8%) 日> 3차 산업지수 MoM (n/a, n/a, 0.8%)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